

■ 연구원 소식

○ 지부 및 회원 소모임 지원 사업 접수(~2월 28일)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은 문화강좌나 역사기행, 문화기행 등을 통해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주지역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여러 지역에 자리하고 계신 회원을 일상적으로 모시지 못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기 위해 2020년에는 지부 및 회원 소모임 지원 사업을 보다 다양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구원에는 서울경기, 광주전남, 전북 세 지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부별 또는 지역을 넘어 회원 소모임을 통한 사업 계획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신 지부 및 회원 소모임 사업에 2020년 연구원 예산을 배치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단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접수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영화관람, 독서토론, 체육활동, 사진강좌 등 다양한 취미 활동도 가능합니다. 지부별 또는 5인 이상 회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안해주시면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 선정 후 예산지원과 인력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 "우리가 연구원이고 연구원이 우리다"는 느낌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부 및 회원 소모임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링컨의 금의환향(錦衣還鄉)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링컨이 대통령 당선 후 금의환향한 스프링필드역 이런 경우 대부분의 성공자들은 특별편을 마련하고 요란스럽게 행차하였지만 링컨은 조용히 이 역을 통해 도착하였다.

미국인으로서, 미국 사람들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1순위인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일 것이다. 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울타리 말뚝 박는 일에서부터 가게 점원, 측량사 등 각종 험한 일을 해왔으며, 교육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정치적 기반도 없는 그가 그 당시 한다하는 정치가들을 제치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마음의 특징은 정직이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분별력에 있었다. 그는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섰지만 무조건적으로 서민들을 두둔하지 않았다. 변호사 시절에 여러 사건들을 변호했는데, 악덕한 힘센 자가 어느 미망인의 재산을 빼앗았을 때 링컨은 끝까지 약한 자의 입장에 서서 변호하여 승소하였다.

반면에 어느 부인이 거액권의 수표를 주면서 변호를 부탁하였으나, 당신의 주장은 옳은데가 없어서 변호해줄 수 없다며 거절하였고, 어느 날은 한 남자가 변호를 의뢰하였는데, 링컨은 사건을 검토하다가 자기 고객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는 상대편 변호사에게 '내 고객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소송을 취하하라고 하겠습니다.'고 하기도 하였다.

또 한 번은 어느 부자가 지팡이로 가난한 사람을 때린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가난한 피해자의 고결한 인격을 부각 시키며 법정을 동정의 분위기로 만들었다. 그러자 부자 가해자 측의 변호를 맡은 링컨은 한바탕 폭소를 터트리며 법정의 분위기를 바꾼 다음 '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처음에는 1,000달러 요구했는데, 가해자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보상금을 9,000달러로 올렸다.'며 이는 무리한 요구임을 상기 시키고 몇 백 달러 선에서 해결 하였다.

링컨은 정치를 정치로 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하였다. 그는 대통령 출마 시기부터 대통령 재직 시에도 다른 당의 위원들로부터 수도 없이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다. 그가 스프링필드에서의 변호사 시절 두 아들이 사무실에 놀러와 난장판을 만들 때에 링컨은 못하게 호통을 치기는커녕 아랑곳하지 않고 한쪽의자에 길게 앉아 변론 준비를 하고 있었듯이 사람들 또는 정적들의 날카로운 공격에도 그렇게 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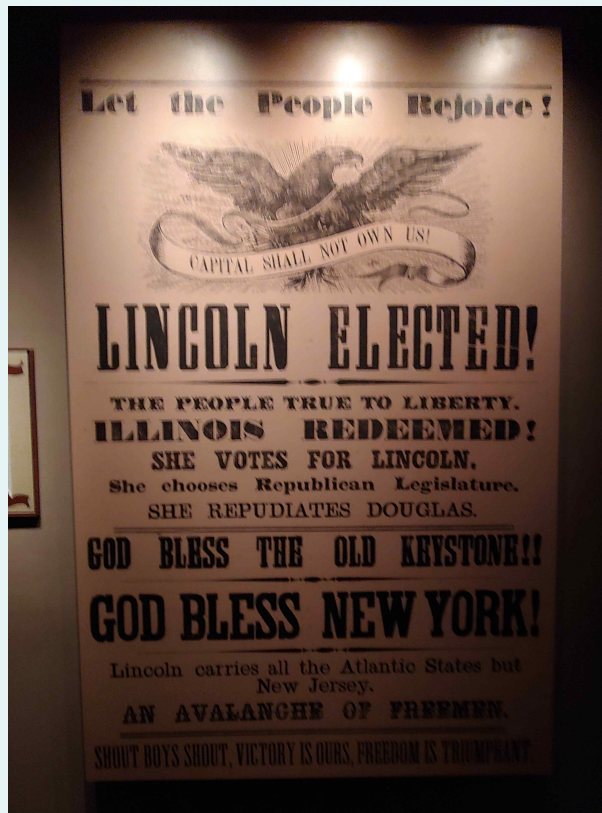
링컨의 인간적인 면모는 어린 소녀의 편지 답신에서도 나타난다. 그 어린 소녀는 링컨에게 편지를 보내, 턱수염을 길러야한다고 했다. 이에 링컨은 선거유세로 바쁜 중에 1860년 10월 15일자로 스프링필드에서 **'나의 친애하는 어린 소녀에게'**라고 시작하며

"너의 매우 유쾌한 편지 잘 받아 보았다. 나에게는 예쁜 딸이 없는 것이 유감이다. 나에게는 열일곱 살, 아홉 살, 일곱 살 세 아들과 그들의 어머니가 가족 전체란다. 나는 수염을 길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르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그에 대해 어리석은 과시용이라 말할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지 않느냐? 아브라함 링컨으로부터"

라고 친절히 답장을 보냈다. 물론 답장에다가는 수염을 기르마! 하지 않았지만 이 직후부터 링컨은 턱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 (에밀 루드비히, 『링컨의 일생』, 해누리에서 인용)



링컨이 성장한 곳 그림



링컨의 대통령 당선 포스터

링컨은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 불같이 화를 낸 때도 있었다. 하루는 대령이 그를 찾아 왔다. 그의 아내가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증기선 충돌로 사망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시신을 수습하러 가야하는데, 전투가 임박한 관계로 육군 장관이 이를 불허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간청하고자 찾아 왔다고 하였다.

때는 전쟁 중이었고 링컨은 서류더미 속에 파묻혀 고심하고 있는 중이었다. 대령의 말을 들은 링컨은 버럭 화를 냈다. '내가 이렇게 고심하고 지쳐있는 것이 안보입니까! 뭐 장관이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당신의 아내는 정부의 장례 절차에 따라 보살핌을 받을 것이니, 집안일을 가지고 나를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현재 모든 가정이 슬픔에 짓눌려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사면초가인 나는 어떡합니까?

링컨이 친절하다고 소문나 있어서 믿고 찾아온 대령은 크게 실망하고 호텔로 돌아갔다. 그런데 대령은 다음날 아침 노크하는 소리에 문을 열으니 대통령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링컨은 대령의 손을 잡고서 "친애하는 대령, 나는 어젯밤에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조국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극심한 불행 속에서 나를 찾아온 사람을 무례하게 대할 권리는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밤새도록 후회했고 오늘 용서를 빌기 위해 찾아왔습니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육군 대령에게 사과하였다.(위의 책에서 참조)

링컨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육군 장관을 만나 대령의 통행증을 가져왔고 대기시켜 놓은 마차로 대령과 함께 증기선이 있는 부두로 갔다. 링컨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 받을 자격이 있음은 위와 같은 일들로 증명된다.

(집필자 - 이번호는 링컨의 묘역을 게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링컨의 면모에 끌려서 우선 그의 일화들을 소개하였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오산 사성암> 세 번째 이야기 “벼랑 위의 약사전과 마애불”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사성암 약사전 | 강철 기둥을 올라타고 벼랑에 매달렸기에 더욱 간절해진, 그래서 비장미가 뻔 아름다운 전각이다

암자의 경내로 들어서면 약사전이 제일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다. 부속 건물 가운데 단연 압권이라,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건축기법이 특이할 뿐 아니라 아름답기가 그지없어 달력 사진으로도 많이 등장한다. 약사전은 비상을 꿈꾸는 모습으로 추녀를 날개 삼아 번쩍 들었으니, 금방이라도 푸른 하늘을 향해 날아가려는 자세다.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의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자, 언제나 하늘을 동경하는 형상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꿈 하나를 현실에서 보는 순간이다.

약사전은 금강산에 있다는 보덕암과 동일한 설계다. 절벽 앞에는 먼저 강철로 만든 크고 긴 기둥 몇 개를 세우고, 그 위에 가까스로 터를 조성해 약사전을 달아 냈다. 절벽에 새겨진 약사여래藥師如來의 입상立像을 주불主佛로 모시기 위한 묘안이다. 그런데 벼랑에 매달린 약사전의 모습에서 오히려 간절한 신심이 우러난다. 의지할 곳 없는 허공에서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하는 구도정신의 표출이다. 그 간절함을 본받았을까? 절벽 아래쪽에서는 관광객들이 암벽에 동전을 붙이면서 제각각 소원을 비는 중이다. 저마다 소원만큼이나 진지한 모습이다.

사성암은 돌이 많은 곳이다. 약사전으로 오르는 계단과 울타리도 모두 자연석을 주워서 만들었다. 여간 정성을 들인 게 아니다. 이 또한 간절한 신심과 수행심의 발로이자, 결과물이다. 돌계단은 절벽을 따라 구불구불 오르다가 왼쪽으로 크게 한 번 몸통을 꺾는다. 계단 끝에는 난간을 앞세운 약사전이 벼랑을 등졌다. '허虛'와 '공空'을 화두로 삼은 단정한 자태니, 등을 기댄 수직의 벼랑이 자못 비장하다. 암벽에는 길고 긴 세월의 때가 이끼로 달라붙었다.

약사전 안에 모신 약사여래불은 생로병사에 시달리는 중생을 위해 약사발을 왼손에 들었다. 원효대사가 선정에 든 상태에서 손톱으로 음각을 했다는 전설의 약사여래불이다. 대략 25m 높이에 이르는 절벽의 상단인데, 단순하고도 고졸한 모습이라서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약사전 앞으로는 섬진강의 장쾌한 물줄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강물은 이제 이곳을 감돌아 지리산의 계곡 물과 만날 차례다. 지금도 푸르고 시린 저 물줄기는 더욱 새파랗고 차가워지리니, 그 만남의 일부분은 도선굴 바깥쪽에서 잠시 보인다. 언젠가 약사전에서 내려오는 길에 관광객들이 동전을 붙여 놓은 암벽 쪽으로 다가가 본 날이 있다.

자세히 살펴봄에, 바위치고는 아주 무른 바위였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손톱으로 새겼다는 전설이 생겨난 모양이다.



약사전 약사여래불 | 나무약사불, 나무약사불, 나무약사불!

다음 주는 <오산 사성암> 네 번째 이야기 "800년 묵은 귀목과 지장전"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